

4월 동행축제 막 오른다...지역축제 연계 소비 '확산'

200개 유통채널·3만3000개 업체 참여...할인·이벤트 양동통맥축제 등 연계...골목상권·전통시장 회복 기대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 촉진 행사인 '4월 동행축제'가 막을 올린다.

광주·전남에서도 양동통맥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이 추진. 축제 방문객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결하는 소비 흐름이 본격 가동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의 미중추 역할을 할 지 기대를 모은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동행축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

지 한 달간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200개 유통채널과 3만3000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대규모 할인행사와 판촉 이벤트를 펼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소비 확산'에 방점이 찍혔다.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에서 소비와 관광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축제 현장에서는 로컬기업 제품 판매장과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운영된다.

이는 소비를 특정 공간에 묶어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하는 소비'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축제 현장에서 시작된 소비가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도록 동선을 설계해 체류시간과 지출을 동시에 늘리는 구조다.

광주 양동통맥축제 역시 이러한 흐름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며 먹거리·공연·체험을 결합해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하고, 이를 실제 소비로 연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24~25일 5·18민주광장 등지에서 펼쳐지는 국가유산 야행을 비롯해 라온페스타(5월 2일·충장상권활성화

지역 일원), 남광주시장 동행축제(5월 8일·남광주시장 일대)도 4월 동행축제와 연계된다.

전남에서는 완도 청산면 일원에서 오는 30일까지 개최되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영암왕인문화축제(12일까지·영암 왕인박사유적지), 무안향토골 동행축제(4월 11일~5월 10일·무안전통시장), 전라병영성축제(4월 17일~19일·강진 전라병영성),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4월 17일~20일·진도군 고군면 화동리), 함평나비대축제(4월 24일~5월 5일), 보성다향제·담양 대나무축제(5월 1일~5일)도 동행축제와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정부는 관광객 유입을 소비로 연결하

는 장지도 강화했다. 여행사와 협업한 '동행축제 50 투어'를 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공항과 공항철도에는 '동행 웰컴센터'를 설치해 축제와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방문 관광객의 지역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소비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과 함께 카드사 청구 할인, 캐시백, 경품 이벤트 등이 동시에 운영된다. 온라인에서는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할인 기획전이 열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특별 판매전이 이어진다.

대형 유통채널과의 협업 범위도 넓어졌다. 하나로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전국 주요 유통망이 참여하면서 지역 제품의 노출 기회가 확대됐고, 이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지역축제 방문과 인근 상점 이용을 연계한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가까운 지역축제와 상권을 찾아 소상공인 제품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지원"...중기부,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 참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무부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지역의 연구 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해 지역 경제 활력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며, 인구 감소·관심 지역과 농어촌 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공급하며,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체부와 해수부는 각각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중심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구 산업의 기반 유형을 △전문인력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

기업 집적 △로컬 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지역의 자원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분석해 집중 지원할 대상과 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강점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다.

육성 목표는 매출과 고용 증대, 나이가 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와 신산업 전환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연계 수단으로 지역 특화형 우수 인력(F-2-R) 외에도 지역 특화형 숙련 기능 인력(E-7-4R) 비자를 추가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어촌뉴딜 3.0,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과 디지털 관광 주민등 관계 부처 정책 수단과 연계해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 선정 후 부처 간 정책 수단 연계의 실효성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후 관계 부처 합동 최종 평가를 거쳐 2027년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모집은 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에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6 동심협력 행복장터 전남농산물 제주특판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농협 전남본부, 제주시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 9~10일 하나로마트 제주점...최대 20% 할인 판매

농협 전남본부는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에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6 동심협력 행복장터 전남농산물 제주특판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농협이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철 농산물을 할인 판매해 전남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판매 품목은 전남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상금'의 블루베리, 사과, 방울토마토, 고구마 등과 전남 오색 매력 열대과일 브랜드 '오매향'의 국산 유기농 바

나나 등이다. 행사 기간 동안 이들 품목은 시중 가격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남 가공 농산물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해남군 화산농협이 '달콤한 이삭 군고구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전남을 대표하는 광역 농산물 브랜드 '상금'과 '오매향'을 통해 고품질 전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통 경로 다변화를 통한 판로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타요 알록달록 차고지' 테마를 적용한 모습.

현대자동차, 국산 캐릭터와 협업 전망루피 등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현대차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 아이코닉스와 협업해 뽀로로 즐거움 기차 여행, 타요 알록달록 차고지, 전망루피 오리지널 등 신규 디스플레이 테마 3종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디스플레이 테마를 적용하면 시동을 걸고 끝 때의 애니메이션, 계기판, 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곳곳에 캐릭터가 등장해 새로운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현대차가 국산 캐릭터와 협업해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월 포켓몬 디스플레이 테마 2종을 출시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디스플레이 테마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마이현대'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표 차량을 등록한 뒤 결제하면 된다.

디스플레이 테마의 디자인 등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테마 적용 가능 차종은 아이오닉 9, 디 뉴 벅스, 더 뉴 아이오닉 6, 2026 쏘나타 디 엡지 등이며, 향후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포함하는 ccNC 전 차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뽀로로, 타요, 전망루피 디스플레이 테마가 현대차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을 발굴해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AI 커머스 전환 및 AX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신세계그룹, 오픈AI와 함께 'AI 커머스' 시대 연다. 신세계그룹이 챗GPT 개발사 오픈AI(OpenAI)와 함께 AI 커머스 기반 유통 패러다임 혁신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글로벌 AI 기업 오픈AI와 국내 유통사 최초로 AI커머스 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대학으로 가는 '모두의 창업'...전남대서 캠퍼스 투어 개최

전국 11개 대학 순회...창업 성향 테스트 등 이벤트 마련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활성화 행사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한 전국 대학 캠퍼스 투어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 오는 15일 캠퍼스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들을 위한 오프라인 설명회도 오는 9일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동 옹봉홀에서 열려, 광주·전남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대학생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간단한 문답을 통해 자신의 창업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창업 성향 테스트'를 체험하고, 전략가형·도전가형·리더형·혁신형 등 개인별 창업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두의 창업' 콘셉트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 후기를 올리면 다양한 상품도 제공돼 창업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층이 쉽고 재미있게 창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전국 일정은 6일 강원대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며, 전남대를 포함해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충북대, 충남대, 카이스트,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등 전국 총 11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된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전국 16개 지역에서 약 한 달간 열린다. 전남 지역은 오는 8일 목포대에서, 광주는 오는 9일 전남대에서 각각 개최된다. 일부 설명회는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창업 플랫폼으로, 현재 혁신 창업가를 모집 중이며 접수는 5월 15일 오후 4시까지 하던 된다.

중기부 조영민 창업정책관은 "이번 캠퍼스 투어 이벤트가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순천상의, 철강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나선다

5억 규모 사업 추진...900명 대상 1인 최대 50만원

중동 경제 악화와 글로벌 수요 둔화가 겹치며 철강산업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순천지역 경제계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접 지원에 나섰다.

순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전남도, 순천시와 함께 총 5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철강 및 연관 기업 재직 근로자 900여명에게 안정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순천시 소재 철강(연관) 기업에 재직 중인 상용직 근로자다. 지원금 은 사회보험료와 건강검진비, 의료비, 유류비, 숙박비 등 근로자 복지 지출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1회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시작되며, 15일부터는 순천상의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순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 구조 위기 속에서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현장형 정책' 성격이 강하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순천상의는 앞서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 1월과 2월 순천시, 울진·해동 산단협의회와 함께 '근로자 무료 톨게이트'를 추진하는 등 비용 절감과 고용 안정을 연계한 대응도 추진했다.

이흥우 순천상의 회장은 "지난해 안심 패키지 사업을 통해 철강 연관 업체 95개사, 1000여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며 "올해는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가 더 커진 만큼, 이번 사업이 지역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